

## 기말고사 2주로 연장, 비대면 방식도 허용

공정성 확보 전제로 비대면 허용  
강의실 확보로 인한 일정 변경  
양 캠퍼스 “비대면 시행” 주장  
학교 “운영지침 마련 중”

장보경 기자 jbg9687@khu.ac.kr

1학기 기말고사 시행 방식과 기간이 변경됐다. 일부 비대면 시험을 허용하고 시험기간은 기존 1주에서 2주로 늘어났다. 학교는 시험 공정성과 구성원 안전을 모두 고려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양 캠퍼스 총학생회(총학)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학교의 결정에 우려의 뜻을 밝혔다.

지난달 26일 교무처 학사지원팀은 기말고사에 대해 “대면 시험 실시를 원칙으로 하지만 비대면 시험도 허용한다”며 “공정성 확보를 전제로 교강사가 자율적으로 평가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강사의 재량에 따라 일부 기말고사는 비대면 시험이나 과제물 제출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우리학교는 지난달 11일 “기말고사는 대면 시험을 원칙으로 한다”며 “외국에 체류 중이거나 코로나19 확진자 등 대면 시험이 불가능한 학생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면 시험에 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태원 유흥시설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비대면 시험을 추가로 허용한 것이다.

기말고사 기간도 늘어났다. 학사지원팀은 “기존 시험기간에서 1주가 추가됐다”며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총 2주간 기말고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강의실 현황을 고려해 평일 야간과 주말에도 기말고사를 치를 수 있게 됐다. 시험기간이 변경돼도 수업일수는 총 15주로 동일하다. 학사지원팀은 “생활



지난달 28일 서울캠 총학은 등록금 반환 및 학사대책에 대한 교육부와 대학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중앙도서관 앞에서 피켓팅을 진행했다.

(사진=장보경 기자)

속 거리두기 지침’에 의거해 학생 간 거리를 최소한 1m 이상 유지해야 한다”며 “강의실 확보를 위해 일정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실현·실습 강좌의 경우 5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실시하는 집중이수 기간 중 기말고사를 치를 수 있으며, 성적 입력기간인 7월 13일부터 15일까지도 시행 가능하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로 비대면 시험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험기간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학교 양 캠퍼스 총학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기말고사 비대면 시행을 원칙으로 재공지해 비대면 시험을 유도해야 한다”며 “비대면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시험 중단 시 그 이후 예정된 시험에 대한 대책과 지방 및 해외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주거 문

제에 대한 대책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의과대학이 기말고사 대면 시험 시행을 결정한 것을 두고 최선묘(의예 2019) 씨는 “대면 시험을 시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에 대한 대책이 확실히 마련돼야 한다”며 “학생 간 거리두기나 전신 소독 등 철저한 예방 수칙 또한 필수”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면 시험 시행에 앞서 코로나19의 확산 방지 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익명의 A 씨 또한 “대면 시험기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 궁금하다”며 “학교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A 씨는 “시험기간 코로나19 교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캠퍼스(서울캠) 학사지원팀은 “시험기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교강사에게 비대면 시험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안내했다”며 “대면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 비대면 시험이나 과제물 평가 등의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제캠퍼스(국제캠) 학사지원팀은 “코로나19 종합상황실에서 기말고사 운영지침을 마련 중”이라며 “운영지침에는 확진자 발생 시 대응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코로나19 진행 상황이 유동적이므로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대안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각 지역으로부터 많은 학생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시험을 치르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도 있다. 선일균(경제학 2014) 씨는 “코로나19의 확산 위험을 감수하고 대면 시험을 치르는 것은 옳지 않다”며 “특히 지방 거주 학생들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면 시험을 시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선 씨는 “공정성을 위해 대면 시험의 원칙을 고수하기보다는 비대면 시험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법을 찾

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서울캠 학사지원팀은 “비대면 시험이 공정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바탕이 돼야 한다”며 “비대면 시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의 소지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식을 교강사와 공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제캠 학사지원팀은 “정해진 시간 내 상반신 웹캠 촬영 병행, 오픈북 서술형 평가 시행 등에 대해 교강사에 안내했다”고 말했다.

서울캠 총학은 “기말고사 대면 원칙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학교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했으나, 학교는 무응답으로 일관했다”며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열린총장실 집중 온라인 공동행동’을 진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총학은 기말고사 비대면 원칙,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공개요청서에 대한 답변 등을 요구했다. 지난달 28일에는 등록금 반환 및 사용내역 공개와 기말고사 비대면 원칙 등을 요구하며 피켓팅을 진행하기도 했다.

## 중단됐던 기관토폴, 국제캠에서 5월 28일 재개

김가연 기자 rkds0617@khu.ac.kr

코로나19로 중단된 기관토폴 시험이 국제캠퍼스(국제캠)에서 재개됐다.

지난 4월 7일 국제교류처는 “국제캠퍼스에서 시행되는 2020 상반기 기관토폴 일정이 5월 28일 재개된다”고 안내했다. 기관토폴은 학교 기관에서 실시하는 토폴 시험으로 이를 통해 자신의 예상 토폴 점수를 가늠할 수 있다.

국제교류처는 “5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됐고, 2021-1학기 파견 교환학생

준비 및 졸업인증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 시험을 다시 실시하기로 했다”며 시험 재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국제교류처는 코로나19 사태로 2020 상반기 기관토폴 일정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수험생들은 필요에 따라 ‘Special Home Edition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Special Home Edition 서비스는 필요한 장비와 환경을 갖춘 후 집에서 시험을 칠 수 있는 서비스다.

해당 시험을 앞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강의실 방역, 거리 유지 등 코로나19 대응책도 마련됐다. 국제교류처는

“코로나19 종합상황실과 협의해 지원 인원 4배 크기의 강의실에서 최대 거리를 유지한 채 시험을 치렀다”며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마스크 배부, 시험 전 후 강의실 방역, 손 세정 후 1명씩 퇴실 등의 대책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서울캠퍼스(서울캠)는 아직 2020 상반기 기관토폴 일정을 공지하지 않았다. 서울캠 국제교류처 서민희 직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기관토폴 일정이 보류됐다”며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어 시험 재개 여부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 지면안내

#### 5.18민주화운동 40주년 특집

마흔 번째 5.18, 마흔 번째 행진곡  
5월의 청년들, ‘들불야학’에서 ‘투사회보’까지

» 4면  
» 5면

#### 연재기획 - 청년정치는 가능한가

소외받는 비서울 비대학생, “인서울 대학생만 청년?”

» 6면

#### 기획

비대면 강의 확대, ‘토론’ 중시한 후마 교육은 어떻게?

» 8면